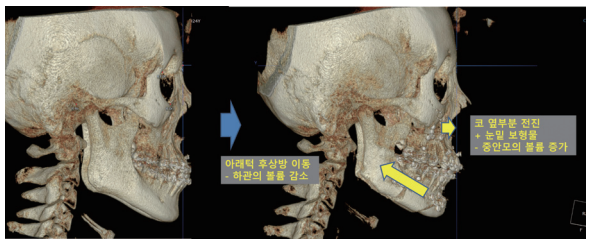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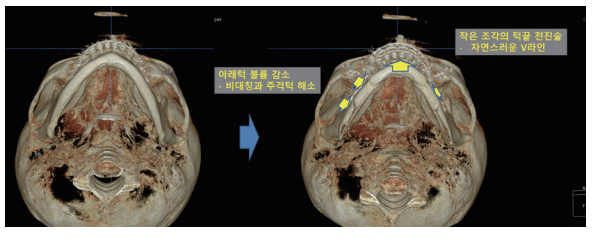
황종민 원장 지·상·강·좌





연조직 심미의 개선을 위해서 하악수술이 아니라 양악회전술을 동반한 양악수술을 계획하였고, Medpor라는 보형물을 눈 아래쪽으로 넣어주어 추가적인 중안모의 볼륨 증가를 하는 눈밑보형물 수술(Malar augmentation with Medpor)도 추가적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상하악이 회전량을 최대로 하여 아래턱에서의 보다 많은 볼륨 감소를 만들고, 턱끝 전진술(Advance genioplasty)을 통하여 최종적인 Pog point의 위치를 맞춰 주었는데, 이때도 턱끝 조각을 작게 디자인하여 좀더 갸름한 얼굴라인을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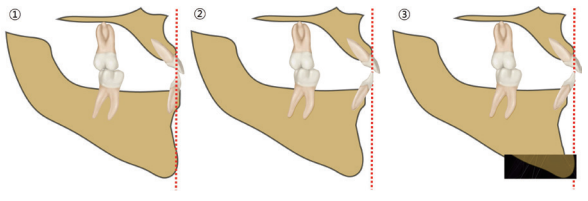






앞서 계획한 수술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피부에서도 의도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술 전의 우울한 이미지는 사라지고, 수술 후에는 밝고 보다 행복해보이는 모습이다.

양악회전술을 할 때에는 상악 전치의 각도, 교합평면의 각도가 회전의 양을 제한하는 제한 요소가 된다. 즉 선교정 시 상악에 소구치를 발치하여, 상악 전치각도가 정상이거나, 협측 경사가 적은 경우에는 회전을 많이 할 수가 없다. 반대로 선교정 시 상악을 비발치로 치료하여 상악 전치 각도가 협측 경사를 보일 경우, 수술 시 양악회전술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상악전치 각도를 정상에 가깝게 개선할 수 있다. 즉 선교정 시의 상악 발치 여부는, 수술 시의 양악회전술의 수술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술전 교정을 시작하기 전, 발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조직 심미를 고려한 수술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초진 시부터 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의 협진이 있으면 좋은 이유 중 하나이다.



수술 교정에서 하악의 발치 여부도 수술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2의 경우와 같이, 주걱턱 환자에서 하악을 비발치로 진행하게 되면 하악 전치가 좀더 협측 경사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1의 경우처럼 하악을 소구치 발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악 전치가 좀더 설측 경사를 가지게 된다.

양악수술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하악 전치의 각도는 결과적으로 하악골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2와 같이 하악에서 비발치로 진행하여 하악 전치가 협측 경사를 지게 되면, 수술을 위해 정상 OJ/OB을 맞추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악골이 1에 비해 후방에 위치하게 된다. 3에서처럼 턱끝 전진술을 통해 1에서와 같이 Pog point의 최종 위치를 맞춰 준다고 해도, 하악의 전체적인 볼륨은 3에서 1보다 감소하게 된다. 1과 3은 같은 Pog point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3에서 Genio segment 위쪽 부분이 1에 비해 후방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 부분의 하관의 볼륨이 적어지게 된다. 이는 안모에서 보았을 때는 입술 아래에서 턱끝 사이 부분 정도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더 들어가 보여 볼륨이 부족해 보이게 된다.

따라서 하악의 볼륨이 감소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2와 같이 하악을 비발치로 술전 교정을 진행할 수 있고, 하악의 볼륨 감소가 불리한 경우에는 하악 발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악의 볼륨 감소가 불리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환자의 나이가 많거나, 피부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우, 환자의 턱밑 살이 많은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걱턱에서 하악에서도 소구치 발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50면에 계속〉